

사설

대선바람과 불교계

불교권에 대선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대한불교종단진흥회'라는 새로운(?) 단체가 '국가와 겨레를 위한 기원 대법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여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교단체의 결성과 활동에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작정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지난 2년 동안 추진되어 온 개혁발사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불교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어용불교·산중불교·차마 불교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 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다.

불교가 전통종교로서 조선시대의 억눌림으로 박해를 받아 왔고, 그후 민중과 사회의 고통을 함께 하는 종교의 역사·사회적 역할을 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제 시대에는 민족적 자각을 일깨워 준 일부 스님들을 빼고는 친일정책으로 더욱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해방후에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올바르게 계도하는데 힘을 집중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개발독재와 군부독재시대에는 불교가 사찰령에 뿌리를 둔 불교재산관리법 등 불교관계악법으로 인해 관권에 예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직도 불해법의 맥을 이은 전통사찰보존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불교의 인적·물적 자원이 '관리'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94년 3월 개혁불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역대정권이 불교도들은 당연히 여당의 표방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과정에서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여러가지 불교사회단체가 결성되고,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증진됨으로써 양상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스님들을 중심으로

불교지식인층의 각성과 비판의식이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채 문민정부를 자칭한 현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정치권력에 의한 각종 불교탄압사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여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불교계의 표밭다지기에 직·간접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각 정당들이 불자회를 서둘러 결성하여 불밀공략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심(佛心)모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점에서 성급하게 정부여당이 권력지향적인 일부 불교도들을 앞세워 불교계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니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여당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은 더이상 종교·신앙을 정치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불교계가 좀 더 자체개혁의 진흥을 감수하면서 내적인 결속을 다져 나가야 한다. 각계각층의 활동에서 권력지향적이고 정치권과 영합하여 불교계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도록 사부대중이 노력해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정치권이 불심을 분열시킨다"라는 '남의 탓'만 할 때가 아님을 명심하자. 차제에 문중단위의 파벌과 계보의식에 따른 이합집산의 행태에서 벗어나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불교가 시민종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민족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떠한 외부적 탄압과 공작정치에도 굴함이 없이 민족종교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고, 민주통일정도의 구현을 위해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열린마당

97년 문화재관리 예산

70%가 정보... '불교만 지원' 시각 버려야

설조 (조계종 권림사찰유위위원장)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중 70% 가량이 불교문화재다. 그러나 정부가 책정한 문화재 보호예산중 이들 불교문화재를 위해 쓰여지는 예산은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문화재 보호예산 책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문화재 고수가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지금껏 일관성 없는 정부의 행정지원

으로 문화재의 보호와 보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찰 문화재 보호와 보수비용 대부분이 해당사찰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왔다.

사찰의 문화재보호는 사찰만이 담당해야 할 몫은 아니다. 그 문화재는 우리민족의 유산이고 우리가 다함께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찰 문화재 보수에 형식상의 지원을 해주면서 마치 사찰에 큰 특혜를 주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

또한 사찰의 문화재 보호와 보수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이라는 편협한 사고를 버리고 더 이상 문화재 보호에 방관자가 되서는 안된다. 민족문화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민족만이 다가오는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다. 문화재는 단순한 유형물이 아니다. 그 속에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지혜 등 정신적인 무형의 유산이 숨쉬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는 일은 우리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관리 예산이 1천1백74억원으로 편성됐다. 물론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지만 적극적인 문화재관리와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문화재청 승격등 관리역량 강화대책 필요

박종웅 (국회의원·문화체육공보위)

문화재 보호 및 보존·수리, 문화재발굴 및 감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해안사 및 팔만대장경, 경주 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정보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자원이자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문화재 유출에 따른 흡수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재와 예산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문화·문화재 예산이 점차 확대돼야 한다. 선진국의 조건은 경제력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진정한 선진국을 가능케 하는 바로미터임을 명심해야 한다.

29% 증가 '만족'... 문화재사랑 국민의식 절실

장진상 (문화재관리국 예산담당)

내년도 문화재관리 예산이 29.2% 증액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다소 부족한 감은 없지 않으나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상률이라 여겨진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원들간의 문화재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화재관리에 따른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 않아도 시·도 자

치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예산부족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터라 이번 예산에 인상은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충만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 총예산이 13%정도 늘어난 점을 감안, 이에 비교하면 비교적 많이 늘어난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문화재관리 예산이 증가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향후 문화재관리에 대한 청신호라 여겨진다.

내년 '문화유산의 해'에 투입될 예산은 문예진흥기금에서 따로 10억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문화재관리 및 보수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고려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불교쪽에서 보면 이번 예산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당이나 석탑묘사 등 각종 불교문화재에도 상당부분이 쓰여질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불교계, 그리고 온 국민이 문화재를 아낄 때 예산부족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만평

점집게 감상합시다!

목어

12월9일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개혁신단의 첫 선장으로 항해를 시작하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돌아보면 스님은 몹시 바빴다. 개혁이란 것발아래 박수 받음만한 일을 많이 시작했다.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월주스님을 상징하는 가장 두드러진 정책으로 꼽힌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표어를 내건 이 운동은 대승불교의 핵심인 자리아타(상구보리·하화중생)의 실천이기에 더욱 신선했다. 앉아

있는 불교가 아니라 서서 움직이는 불교를 표방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월주스님은 "수행자보다는 행정가의 이미지가 더 크다" "매스컴에 자주 등장한다"는 등의 지적도 받았다.

이제 중요한 남은 임기다. 나와 너를 분별하지 않고 자연까지 하나로 보는 '心'의 발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는 꽃을 피운다. '깨사운동'의 성공은 곧 한 국불교가 제 몫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월주스님의 중무행정은

'깨사운동'으로 이어지고 그 결실에 역점을 뒀다. 취임초부터 거론됐으면서 아직도 매달리지 못한 중앙신도회 구성의 건, 선뜻 나서서 풀지 못한 해안사 방장문제 등은 감점 요소

월주스님의 '2년'

다. 물론 비조직적인 한국불교의 체질 또는 고질병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월주스님의 추진력과 결단력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중은 바란다. 최근 사찰환경수호를 위해 분발사 주지스님 3천여 명을 운집시켰듯이 단호함을 보

일때는 과감히 보여줄 것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가 불교계를 넘보며 유혹 또는 책동을 하고 있다는 설이 난무하다. 밖을 탓하기에 앞서 안을 먼저 단속하는데 월주스님은 나서야 한다. 어깨가 무겁겠지만 중단협의회 회장이므로 불교라는 이름이 실추되거나 권력의 시너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계 전체를 보는 일도 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 산적인 일들을 순조롭게 풀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총무원장이 되도록 사부대중은 힘을 보태자. 그래야만 '깨달음의 사회화' 꽃이 처처에 피어날 수 있다.

새싹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깊은 물처럼

부족한 것은 시끄럽지않게 가득찬 것은 조용하다. 어니석은 사상은 반쯤 채워진 목그릇과 같고, 지혜로운 사상은 가득찬 연못과 같느니라. (숫타니파타)

협찬

석왕사

주지 권택은

TEL. (0361) 51-5040

연말 불우 이웃 돕기

'96 광주 불교 합창 예술제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광주지역 5개 사찰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음성 공양을 올립니다. 불자님의 가슴에 불음을 전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화합의 장으로 모십니다.

주최 : 광주불교 사암연합회

협찬 :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지사

후원 : 향림사, 증심사, 화엄사, 선덕사, 한마음선원

일시 : 1996년 12월 17일(화) 오후 7시

장소 : 남도예술회관(도청앞)

연말 불우 이웃 돕기 '96 광주 불교 합창 예술제